

연예뉴스 HOT 3

‘학폭 의혹’ 박혜수 주연한 ‘디어 엠’ 방송 연기



박혜수

연기자 박혜수(27)가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주연 드라마 방송 일정이 연기됐다. KBS는 당초 26일 첫 방송키로 했던 2TV 금요드라마 ‘디어 엠’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려던 제작발표회 일정도 연기했다. 제작진은 “최근 제기된 출연자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 의혹이 그 배경임을 시사했다. 박혜수는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박혜수 학폭 피해자 모임’ 측은 피해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김민재 부실연기 강습하고 부당이익 취했다”



김민재

25일 연기자 김민재가 부실 연기 강습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 A씨는 2010년 연극영화과 진학을 위해 김민재로부터 20만원 강습비에 5회 연기 과외를 받기로 했지만 “그가 연기 수업이 아닌 ‘쌍꺼풀 수술 해라’, ‘살 좀 빼라’ 등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습 횟수도 2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재 측은 “과외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면서 “악의적 음해와 이수 조장을 위한 주장이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 “국방위원 후원금, 부적절한 후원 아냐”



이영애

배우 이영애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부적절한 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애 측은 25일 “군인 가족으로서 군인들에게 계속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이영애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 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씨가 과거 한국레이컴이라는 방산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영애 측은 “남편은 방산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경영에 손 댄 지 10여 년이 지나 지분도 0%대 가량”이라고 반박했다.

26일자 TV 프로그램은 지면 사정으로 쉽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 시청률 20% 이끈 신스틸러…양집사역 열연한 배우 김로사

“광기의 양집사 ‘짚’까지 등장…꿈만 같아요”

20년간 연극…뒤늦게 드라마 입성 반지하방 함께 했던 절친 축하 눈물 실제 모습? 탐욕과는 거리 멀어요



“저 남의 것 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SBS ‘펜트하우스’로 광기 어린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로사(22) 서울서 서대문구 스포츠동아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앞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lh1147@donga.com

김로사 ▲1974년 5월1일생 ▲201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연기 석사 ▲1999년 연극 ‘대지의 딸들’로 데뷔 ▲이후 ‘택시드림’, ‘헤비메탈 걸스’, ‘돌아온다’, ‘시련’ 등 연극 다수 출연 ▲2020년 SBS ‘펜트하우스’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배우 김로사(47)가 외친 ‘웃픈’ 한 마디다. 화제의 드라마 SBS ‘펜트하우스’ 속 모습을 떠올리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지난달 마무리한 시즌1에서 극중 가정부 양미옥 집사를 맡아 엄기준을 향한 광기 어린 집착을 실감나게 연기했다. 덕분에 극중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용의선상’에 끊임없이 오르기도 했다.

19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시즌2에서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엄기준의 새 아내가 된 김소연에 눈을 번뜩이며 “나는 그 남자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라고 일갈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호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막장 지옥’의 문을 화려하게 열었다. 2회 만인 20일 단숨에 20.4%(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넘은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동아 사옥에서 만난 김로사는 “꿈이야, 생사야”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 “양 집사 ‘짚’까지 유행, 믿을 수 없죠”

엄기준을 향한 음흉한 눈빛, 김소연의 얼굴을 붙인 밀짚인형을 송곳으로 마구 찌르며 발산하는 광기가 시청자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당 장면들은 온라인상에서 ‘짚’(짚은 동영상)로 만들어져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다.

“인기를 실감하는가?” “연출자 주동민 PD가 ‘이런 짚이 돌아다니다’며 먼저 알려줬어요. 후다닥 내려받아 문자메시지에 열심히 쓰고 있죠. 심지어 엄기준이 말하는 주단태와 양집사의 이름을 딴

“단양 커플을 믿고 있는 시청자도 있네요. 하하하! 정말 신기할뿐이에요.” “처음부터 캐릭터의 반전을 알고 있었다. ‘비밀이 있다’고만 들었어요. 엄기준을 짚사냥하는 설정은 시즌1의 두 번째 대본 연습 때 알았죠. 대사를 읽으니 모든 배우들이 ‘호예?’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몰입해서 ‘내 연기가 이상했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양 집사의 집착에 다들 놀란 거더라고요.”

“실제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살면서 ‘지나치게 해마다’는 편찬은 들어봤어도 ‘사악해 보인다’는 말은 처음이예요. 그래서 양 집사가 더욱 난해하게 다가왔죠. 연기해온 인물 중 최상의 광기 캐릭터였거든요. ‘김소옥 작가님께서 날 그렇게 보셨나?’ 잠깐 걱정했더니깐요.”

● “새로운 가능성 열어준 ‘펜트하우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999년부터 줄곧 연극무대를 누벼왔다. 드라마에도 종종 출연했지만 ‘펜트하우스’로 시청자에 제대로 얼굴을 알렸다. “대학교에 나만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이 좋았다”고 고백했다.

“연극을 하다 뒤늦게 안방극장에 입성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스케줄이 일찌감치 딱 잘 만큼 많은 작품에 출연했어요. 40대가 넘어가니 여쩔 수 없이 캐릭터의 폭이 줄어들게 느껴졌죠. 고민이 많았는데 2014년 노조원으로 출연한 영화 ‘카트’로 깨어났죠. 다른 배우들이 직접 오디션을 찾으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걸 보고 ‘몸으로 부딪쳐보자’ 용기를 냈어요.”

“‘펜트하우스’가 큰 전환점이 됐겠다. “맞아요. 드라마 덕분에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기를 계속 해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기뻐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질문에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유는 절친한 동료 배우 박성연 때문이었다.

“친구 생각이 울컥한 듯하다. “20여년을 친하게 지낸 (박)성연이가 ‘펜트하우스’를 보자마자 ‘나, 이제 언니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라고 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 끼쳐 마음 아픈기도 하고, 20여년 전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극단 생활을 하던 친구가 기뻐해주 행복했어요.”

“‘펜트하우스’를 떠나는 게 아쉽겠다. “당연하죠. 김 작가님은 예고가 없으신 분이니까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주 단태와 ‘영혼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은 어떨까요? 하하하!”

티아라 출신 지연·소연, 잇따라 살해 협박 받아

지연 주거침입·소연 SNS서 협박 신변 보호 비상…경찰 수사 나서

그들 티아라 출신 연기자 지연과 가수 소연이 잇따라 살해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밤 10시경 소연이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들어간 30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다행히 소연은 당시 외출한 상태여서 남성과 마주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최근 소연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스토커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소연

은 스토커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연은 2011년 스토킹 피해를 입어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지연이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파트너즈파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관련 증거를 모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지연과 소연은 2009년 나란히 티아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지연은 연기자로서, 소연은 솔로가수로 각각 전향했다. 두 사람에 대한 협박 가해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계에는 연예인 신변 보호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며 가뜰이나 뒤숭숭한 상황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이래저래 연예인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썩을 때로 썩어 좀비와 닮았는 정치인들야
이שמ,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할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 홍익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플랫폼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소숙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성인 목사 010-4277-0691
- 법무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주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정국장 010-7653-5373 / 이주지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황영성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상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수원인 010-4741-7008
- 인천 조인호 010-7374-4111 / 서재은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영현 010-3742-5998 / 전남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9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주안 박민수 010-4830-1810 ● 강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원 010-5769-0532 ● 전남 김태덕 010-6258-3510 / 우영호 010-8804-3424
- 인천 박은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준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현 현성호 010-4707-2659
- 함선희 010-5177-9479 ● 여주 황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드라아 010-3435-0159 / 박우영 010-5221-8119 / 김연태 010-9005-3616
- 경기 남부 황비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필 010-5463-6952 ● 중국 송능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허이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lubuntu 1644-6733